

# 이중 소명, 성분리적 소명 인식의 대안 고찰 - 일가정 균형 관점에서\*

## Dual Calling, an Alternative to Gender Separated Calling - Focused on Rebalancing Work and Family

송수진 (Sujin Song)\*\*

### ABSTRACT

Calling has been defined and studied in three elements: meaning for 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transcendental calling. In Korean Christianity, child-rearing and family care tend to be emphasized as primary calling of married women through preaching, Bible study, and fellowship. This paper points that calling is often interpreted within the cultural premise of patriarchy and it is not suitable for the lives of modern women because it considers women's public self less. The paper examined concept and limitations of calling suggested by major scholars in Christianity and suggested dual calling based on self-theory as an alternative to gender-separated calling. Dual calling posits that men and women have calling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questions follow.

**Key words:** work and women, work and family, calling, dual calling

\* 2020년 02월 18일 접수, 03월 25일 최종수정, 05월 08일 게재확정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부교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songsj@korea.ac.kr

## I. 서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메가 히트작으로 기록되었다(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사회적 자아가 상실되며 정신적 이상을 겪고 위기를 통해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한 여성의 일생을 통해 여성이 겪는 차별적 경험과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해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유자녀 기혼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치부해왔던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 문제로, 세대가 갖는 공통의 문제이자 구조적 한계의 결과로 공론화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2018년 기준 73.8%이며 남학생 진학률은 65.9%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 대비 7.9% 상위한 수준이다(통계청, 2019). 그에 비해, 한국 여성 고용률은 50.5%로, 69.7%에 달하는 남성 고용률과 비교해 19.1% 떨어지며, OECD 여성 평균 고용률인 66.7%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20).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서 교육 경험과 기회, 교육 집중도와 투자의 차이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률 및 사회 참여율에서는 남녀 성별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제도와 문화, 결혼과 출산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의 이유로 보고한다(김난주, 2016).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결혼과 출산, 즉 본 논문에서 사적 영역이라고 지칭하는 가정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분포는 국제적으로도 특이한 M자형을 보인다(김연희·김병석, 2017). M자형 고용률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시작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고용률이 낮아지다가, 30대 중후반에 최저 고용률을 기록하고, 아이를 조금 키우고 난 후인 40대에 들어서서야 회복되기 때문이다(이승현·박영일, 201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는 L 자형 분포를 보인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이 가능한 근무지가 주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을 기피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률이 더욱 저조하기 때문이다(권순원·이영지, 2010). 실제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남녀 고용률은 남성 84%, 여성 65%로 그 격차가 19%에 달한다(통계청, 2020).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 밖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보고된 설문 결과가 있으나(강남순, 1995), 기독교 여성이 비 기독교 여성보다 더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는지를 조사 발표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기독교

문화와 교육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백소영, 2013).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라는 말씀을 기초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여성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라고 교육하곤 한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은 기독 여성들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는 최우선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소명은 차선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친다(최순양, 2015). 강남순(2017)은 기독 여성들이 교회 밖의 활동들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와 실태, 교회 내 위치와 활동, 신앙 의식 등을 지적하였다.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이라 불리는 3K -부엌(Kuechc), 아이들(Kinder), 교회(Kirchc)를 넘어서 수 있도록 관심의 폭이 확장될 수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강남순, 2017).

기독교에서의 소명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함 그리고 직업들을 통해 세상을 돕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타났다(Luther, 2010; Guinness, 2013). 이러한 전통적인 소명 인식은 기혼 기독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삶을 설명하는데 충분할까?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대를 위해 정부는 일가정 균형이라는 철학을 제시하며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20). 전통적인 소명 인식은 일가정 균형 시대에도 유효할까? 본 논문은 기존의 소명 담론은 성별로 분리화된 소명 인식에 대한 현실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도리어 전통적인 소명 인식이 성별에 따라 소명의 영역이 획일적으로 규정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드러내며, 일가정 균형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자아 이론(Sirgy, 1982; Reed 2002)을 기초로 한 이중 소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성별 분리화된 소명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핀다. 궁극적으로, 기독인 여성의 소명 영역이 집 안에 한정되지 않고 일터 공헌과 사회적 소명으로도 발현될 수 있고, 남성의 소명 영역은 일터나 공적 영역만이 아닌 가정과 사적 영역에도 존재함을 주장한다.

## II. 기존의 소명에 대한 인식

### 1. 소명의 정의

소명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한다(이중은, 2018). 소명의 개념을 직업으로까지 확장하여 설명한 것은 16세기 청교도 개혁자들이 시초이며, 마틴 루터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마틴 루터는 소명을 영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영적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은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외적 부르심은 특정하고 다양한 임

무에 대한 책임감을 말한다(Luther, 2010). 루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를 소명으로 보았다. 이렇게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직업과 위치를 통해 인간을 돌보시는 일에 관여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이종은, 2018). Schultz(2005)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소명을 받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사역의 장소로 보냄 받아 각자의 위치와 일을 존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서문교, 권인수(2016)는 자신이 하고자 하거나 수행하는 일이 본인 삶의 목적과 의미로 인식하는 정도를 소명 의식이라고 정의했다. 오수진(2011)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일에 대해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소명 의식은 개인과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Hall and Chandler, 2005; Wrzesniewski, 2002). 소명 의식은 작업 중심성(Dubin, 1956), 직업 헌신(Loscooco, 1989), 직업 몰입(Kahn, 1990), 의미 있는 일(Rosso, Dekas, and Wrzesniewski, 2010), 사회 지향적 일(Grant, 2007, 2008)과 같은 유사 개념과 구별되며, 초월적(혹은 외부적) 부르심, 자기 삶의 목적과의 합일성, 사회적 지향성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Dik and Duffy, 2009).

Dik과 Duffy(2009)는 한 개인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는 외부적 요소의 존재를 초월적 부르심이라 정의한다. 이때 부르는 자는 국가의 부름, 가족의 전통, 사회의 필요, 더 높은 권위 등의 외재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Dik and Duffy, 2009). 목적과의 합일성은 삶에서의 특정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일이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고 삶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Hall and Chandler, 2005; Wrzesniewski, 2002). 사회적 지향성은 개인의 직업적 선택들이 사회적인 지향성을 지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공공선을 증진한다거나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요소를 포괄함을 의미한다(Grant, 2007, 2008).

이종은(2018)은 소명을 직업(job)과 진로(career)와 구분된 개념으로 보았다. 소명이란 경력 개발이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과 같이 더 큰 선에 기여하기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이종은, 2018). 또한 소명의식이 개인적 충만감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이종은, 2018). 이러한 견해는 Dik과 Duffy의 소명에 대한 관점을 지지한다. Dik과 Duffy(2009)의 소명 개념은 기독교적 시각을 넘어,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 2. 마틴 루터의 소명 인식

마틴 루터는 성직자들만 소명의 삶을 살고 있고 세속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소명의 삶이 아니라는 중세의 정서에 반대했다.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통해 세

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우병훈, 2018). 이때의 신분은 교회를 넘어선 국가 및 가정 내에서의 신분을 포괄한다(우병훈, 2018). 그는 세속적 직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며 따라서 농부, 간호사, 교사 모두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병훈, 2017). 이는 막스 베버(2018)가 마틴 루터의 저작 핵심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인용한 문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우유를 짜는 것도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비천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일들은 물론이고 가장 미미한 일들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Weber, 2018: 132).

마틴 루터는 부인인 카터리나 본 보라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과 관련한 일을 분업화하여 사역을 펼쳐나갔다(김선영, 2014). 결혼 전 수녀였던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집안일을 담당하였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마틴 루터의 아내는 종교 개혁의 복잡한 시대 상황에서 마틴 루터의 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섬기는 등 전문 가정 경영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마틴 루터 역시 아내의 가정 사역을 전문 경영인의 수준으로 인정하며 가정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소명의 터전이라고 말했다(Selderhuis, 2016). 이는 이후 기독교 진영에서 여성의 소명을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하고 축소하는 데 발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루터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여성은 출산할 수 있기에 엄마가 되는 것이 불가항력적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였다(김선영, 2014). 수녀원을 폐지하는 개혁 운동을 펼쳤던 루터에게 진정한 여성 훈련의 장은 수녀원이 아닌 가정이었다. 영혼들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Wiesner, 1992).

루터의 이런 견해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둘로 나뉜다. 중세 대부분 여성의 직업은 엄마였기에 여성의 지위가 증진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부류와 여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정으로 한정 짓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부류이다(Wiesner, 1992). 후자의 시각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남녀의 영적 평등이 사회 정치적 평등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교회 내의 공적 직위를 여성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밝힌다(김선영, 2014). 마틴 루터가 제시한 ‘가정은 아내에게, 사회는 남편에게’처럼 성별에 따라 소명을 분업화하는 시각은 비록 종교 개혁 시기에 가정은 여성들 사명의 터전이라는 인식의 수립에는 기여했을지라도 현대 기독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바라보는 인식 틀로서는 부족하다. 사적 영역이 여성의 소명 장이라는 성별화된 통념을 심어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마틴 루터의 논의를 따르면 ‘가정주부는 이미 소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소명의 영역을 두고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가?’, ‘기독교 여성들이 왜 사회적 소명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가?’ 등과 같은

주장이 정당해진다. 이러한 소명 인식이 내재화된 기독교 여성들은 ‘가정이 소명의 영역인데 왜 나는 그 소명을 팽개치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할까?’ 하는 자기 점검이나 교회 내의 비난이 섞인 시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남성을 포함한 교회 내 구성원들 역시 편향된 소명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대안적 문화를 만드는 기독교인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행동하기도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에 기여하도록 부름 받고 이를 위한 훈련과 재능을 부여받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공적 소명 의식을 품을 이유가 적어진다. 기독교 여성들은 가뜩이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문화와 제도, 자신이 수행하던 돌봄 노동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에 더해, 교회 내 저조한 인식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자기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 3. 칼뱅과 베버의 소명 인식

칼뱅은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일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노동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일을 통해 서로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다. 칼뱅은 개인적 동기화, 자율성이 소명을 판별하는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김선권, 2018). 타율이나 외부적 요인이 아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내면에 주신 동기가 소명을 판별하는 주된 기준이라고 지적한다(김선권, 2018). 그러나 칼뱅은 루터와는 달리 자기 훈련과 절제를 강조하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근면과 절약, 섬김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봉석, 2016). 중세 시대에는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수도사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이들로 인식되었다. 루터는 이런 일상에서 떨어져 있는 수도사들의 삶을 비판하며 세속 직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우병훈, 2017). 칼뱅은 루터의 이러한 논지에 더해 수도사들이 금욕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했듯, 세속적인 직업 생활 속에서도 게으름과 한가함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에 참여하듯 노동할 것을 강조했다(김선권, 2018). 이를 세바츠찬 프랑크는 “모든 기독교인이 일생 수도사가 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Weber, 2018: 223).

칼뱅의 사고방식은 막스 베버에게 영향을 끼쳤다. 막스 베버는 칼뱅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결합하여 직업적 윤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엄격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절제와 훈련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Weber, 2018). 이 관점은 루터를 통해 회복되었던 ‘타인을 섬기기 위한 자리’로서의 소명 의식은 약화하고, 부의 획득 자체를 일의 목적으로 보았던 중세 이전의 소명에 대한 시각으로 회귀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문시형, 1999).

칼뱅과 베버의 소명 인식도 기독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속 사회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적용하고 구현한 자본주의 정신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소망이나 필요성을 인정해주거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실천적, 인식론적 장애물에 대한 논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틴 루터가 여성의 소명 영역이라 주장했던 가정과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약화해, 기독교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던 돌봄 노동에 대한 소명으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칼뱅이 가진 성경의 여성 관련 본문에 대한 가부장적 해석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박유미, 2018). 칼뱅은 여성의 공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의 보조자로 창조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남성중심적·가부장적인 성경 해석을 하였다(박유미, 2018).

#### 4. 오스기니스의 소명 인식

오스기니스(2013)는 그의 저서 ‘소명’을 통해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차적 소명과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이차적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가톨릭적 소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1 소명은 예배, 복음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청교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2 소명은 직업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Guinness, 2013). 오스기니스(2013)는 일차적인 소명만 중시하는 견해를 가톨릭적 왜곡이라 부르고 이차적 소명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개신교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루터는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직자들의 삶만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가톨릭적 왜곡에 반기를 들고 세속적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소명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스기니스는 일차적 소명과 이차적 소명 둘 다를 중요한 소명의 차원으로 인식한다(Guinness, 2013). 오스기니스의 소명에 대한 인식 중 일차적 소명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인 예배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없는 개인적 차원이므로 해석과 적용에 무리가 없다. 신앙 안에서 각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이차적 소명에 대한 관점은 전통과 관습, 사회 문화와 일터 문화의 영향을 받기에 남녀 간의 상이한 이해와 적용이 예기된다.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차적 소명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이차적 소명을 인식하는 방식은 상이하게 전개된다. 남성은 직업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쉽게 인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어머니 아내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인식한다. 남편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가 세상 속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우선적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Fraser, 2013), 즉 남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을 관리하는 성별 고정화된 역할 모델이 소명 인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명 인식은 가부장적 설교와 기독교 서적 등을 통해 교육되고 강화되어 내재화된다(송수진, 2019).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남성에게는 세상에 참여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으로, 여성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과 양육의 명령으로 이원화되어 오해되는 것이다.

### III. 기존 소명 인식의 한계와 원인

한국 교회의 소명 이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학자들의 소명 인식을 살펴보았다. 직업 소명론을 주창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김승호, 2015), 기독교 노동윤리를 설파한 베버(이봉석, 2016), 소명의 다차원적 특징을 설명한 오스기니스(김승호, 2015)는 한국 기독교계의 소명 인식에 영향을 끼쳤고, 본 논문의 논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저자들이다. 이 학자들은 우리가 조금 더 복음에 근거한 소명 인식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소명에 대한 논의들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세속적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라고 주창했던 마틴 루터의 시도로 직업 소명론이 일어났다(우병훈, 2018). 그러나, 당시 여성 직업의 대부분은 가정주부로 이것이 성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반영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굳어져 후대로 전수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겼다(Wiesner, 1992). 칼뱅과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과 부의 획득을 강조하면서(이봉석, 2016),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가사 노동 영역에 대한 가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인정해주던 관점조차도 약화하게 되었다(박유미, 2018). 오스기니스는 일차적 소명, 이차적 소명 등 소명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Guinness, 2013). 그러나, 오스기니스가 제안한 소명의 다차원성으로도 가부장적 교회 안에서 성 역할에 따라 소명의 영역이 확정되는 문제를 포착해 내거나 설명할 수 없다.

본 절에서는 이중 소명이라는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으로 성 역할에 따라 분업화된 소명 인식이 유지, 강화된 요인을 먼저 약술하고자 한다. 성 역할에 따라 분업화된 소명 인식의 주요 요인으로 산업화 시대라는 시대적, 문화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주제는 기독 여성의 사회 참여와 소명 인식에 대한 것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 1. 기독교와 유교적 가부장제와의 만남

여성학계에서는 통상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며 착취하는 관습과 사회구조 체계로 이해한다(Walby, 1997). 송인규는 가부장제에 대한 기독인들의 네 가지 입장을 다룬 글에서 가

부장제(biblical patriarchy)를 “남성이 여성의 머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여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며 논박한다(송인규, 2018: 16).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핵심과 기원은 삼종지도(三從之道)에 집약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규범으로 여성을 스스로 사고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가정에서 남성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남성 종속적인 존재로 본다. 이 때 여성과 가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착관계에 놓인다.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지며,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역할 또한 지대해진다.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혹은 기독교 여성의 사회 참여를 연구한 저자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별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기독교와 유교적 가부장제와의 결합을 지적한다. 위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결합하며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계층성이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 더욱 고착화 되었다는 것이다(백소영, 2013). 교회는 주로 ‘좋은 엄마’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 이는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그대로 교회 교육 내로 투영된 결과라고 보았다(최순양, 2015). 백경흔(2015)에 따르면, 가부장제가 주장하는 좋은 모성에는 “생물학적 엄마의 중요성, 24시간 제공되는 모성, 아이의 요구가 엄마보다 앞서기, 엄마는 아이 키우는 데 아낌없이 시간, 에너지, 돈을 쏟아붓기, 엄마일은 개인적 사적 책임”등의 원칙이 있다(백경흔, 2015: 201). 즉, 가부장제는 생물학적 모성만을 이상적 양육자로 여기고 “자녀 양육은 엄마의 일”이라는 성별 분업 통념을 갖는데(백경흔, 2015: 201) 이것이 교회 교육 내에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종교를 통해 자아를 찾고 회복하는 측면으로 드러나는데, 기혼 기독교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족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아를 찾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이정숙 외, 2013). 최순양(2015) 역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식과 가족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 2. 설교와 기독교 교육의 영향력

성 편향된 설교와 기독교 문화 역시 기독교 여성이 사적 영역을 우선적 소명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된 중요 요인이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는 교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목회자는 설교권(preaching power)과 교육권(teaching power)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이다(강남순, 2017). 이들의 다수는 기독교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 참여 기회나 공적 자아의 상실감을 겪는 문제에 대해 깊이 실감하거나 민감히 포착해 볼 일이 없었을 중장년 남성들이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메시지를 성경 공부 등을 통해 내재화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소그룹 리더들과 교육자들 역시 목회자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가부장적 유교의 시선으로 왜곡된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학습하며 재교정을 받을 기

회가 적었던 교회 내 소그룹 리더들(i.e. 집사, 남녀전도회, 청장년회등)은 여성을 "돕는" 배필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성경 공부등을 통해 전수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고정화된 성 역할에 따라 소명의 영역을 한정하시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백소영(2018)은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맨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문화적 요소로 덧칠한 성경 읽기를 되돌아보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진리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부분과 당시의 맥락과 시대상들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는 의미가 덧붙여지거나 왜곡되어 해석되는 부분을 갈라내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다(백소영, 2018).

### 3. 산업화 시대의 소명 인식의 편향성

전통적인 소명에 대한 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설명력이 적어졌다. 산업화 시대는 전문화, 분업화, 공간의 분리, 시간의 분리가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은 가정(사적 영역)을 남성은 일터(공적 영역)를 주된 소명의 터전으로 담당해왔다(백소영, 2013).

현재의 시대는 산업화 이후의 시대로 4차 산업 혁명으로 들어서는 시점에 있다. 분업화를 넘어 융복합, 연결, 통섭이 주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는다. 일의 형태와 고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 공간과 업무 시간에 대한 분리가 약화하는 추세이다. 공사 영역을 분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한 가지 영역을 전담하여 소명의 영역으로 삼던 기존의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백소영, 2019). 산업화 시대에 가정 공동체에서 남성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로 이분법적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편이성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있고 훈련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높다는 점과 산업 흐름과 일터 문화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 영역은 여성의, 공적 영역은 남성의 소명의 주 영역이라고 고정하는 것은 시대에 반하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여성 기독교인들이 공적 영역에 기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약화하거나 여성들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둘 다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중 부담의 짐을 느끼게 한다. 소명의 영역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남성과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출한다. 따라서, 기존에 담당해오던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에 더해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이 더해져 두 영역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결혼한 여성에게 제1의 소명이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독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주셨을까(송수진, 2019). 교육 기회와 훈련, 초월적 부르심에 기초한 흥미와 열망(Dik and Duffy, 2009), 재능 여부와 무관하게 기독 여성의 일차적 소명은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한한다면 기독 여성들은 공적 자아의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이 모순 앞에 기독교 청년들은 가부장제에 갇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과 공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소명 개념은 현재의 기독교 여성들이 공적 소명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양혜원, 2012). 그러나, 기존의 소명 인식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전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한계가 있다.

#### 4. 한국 기독교 여성의 소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주체 중심

앞서 기술한 바대로, 기독교 여성의 소명의 영역이 가정으로 제한되는 경향은 설교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구성원들이 공유한 문화와 유교적 가부장제와의 결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igure 1은 기독교 여성들이 소명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체별로 나누고 각 주체와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요약하여 분석한 것이다. 특별히 유자녀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기독교 여성의 소명 인식에 영향을 주는 집단은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태어나고 길러진 원 가정, 둘째, 본인이 결혼을 통해 남편과 구성한 가정, 셋째, 본인이 속한 교회, 넷째, 본인이 접하는 사회(세상)이다. 원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통해 가정에서의 성 역할 및 직업 소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부모가 상호 작용하고 가정과 직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역할 분담 하는지를 관찰하며 이를 습득한다. 학습 이론 중 모델링(modeling)에 해당한다(Palan and Wilkes, 1997). 부모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전달(instrumental training)받거나 중재(mediation)를 통해 교정받기도 한다(Kim, Lee, and Tomiuk, 2009).

둘째, 결혼 이후 자녀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돌봄 노동을 남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간접적으로 기대하는 등에 의해 가정 내 성 역할 및 직업 소명 인식이 촉발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결혼으로 생긴 가족은 시부모와의 관계를 포괄한다. 시부모가 유교적 가치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며느리에 대한 성 역할 고정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남편과 자녀는 배우자이자 엄마의 직업 소명에 찬성, 조력, 무시, 반대, 혹은 방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딱히 엄마의 직장 생활에 대한 명시적인 찬성이나 반대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실제적 돌봄 노동의 필요는 그대로 있기에 기독교 여성 스스로가 양육(돌봄 노동)과 직장(시장 노동) 사이에 물리적, 정서적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공간이다.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가정 관리는 누가 하나 등과 같은 실질적 필요가 상존한다.

셋째, 교회는 신앙과 신앙 윤리, 신앙적 가치관을 교육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적 메시지가 섞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전통적인 가정 내 성 역할이 전파된다. 이차적으로는 교회 내 소그룹 성경 공부, 일대일 양육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게 자녀를 주셨는데 어찌 바깥으로 돌아다니리오’, ‘남편과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식의 가르침이 강화된다. 구성원들의 교제를 통해 세부적으로 전달되고, 기독교 여성인 스스로 내재화하는 경로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사회)과의 접촉 또한 기독교 여성의 소명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와의 접촉은 기독교 내부 가치관과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영역으로 분류하였지만, 인간관계, 미디어, 교육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역시 준거 집단(reference group), 소속 집단(membership group), 열망 집단(aspirational group) 등으로 나뉘어진다(Hawkins and Mothersbaugh, 2016). 미디어나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들과 같은 인간관계는 기독교 여성이 여성주의적 시각의 새로운 성 역할을 접하는 주요 전달 통로이다. 이 사회적 요인의 영향 방향은 일괄적이지 않다. 대립, 갈등, 병존, 지지를 포함해 정과 부의 방향이 섞여 있다. 알파걸, 린 인(Lean In)(Sandberg, 2013)등으로 대표되는 '일도 하고 가정도 갖고 다 가능해(having it all)'라는 패러다임을 접하기도 한다. 이 때 기독교 여성은 '저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다, 가정을 가꾸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신념 아래 거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혼란스러워하며 회의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공적 자아에 기반한 사회적 소명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직업 소명 인식에 격려를 받아 행동을 취하거나 연대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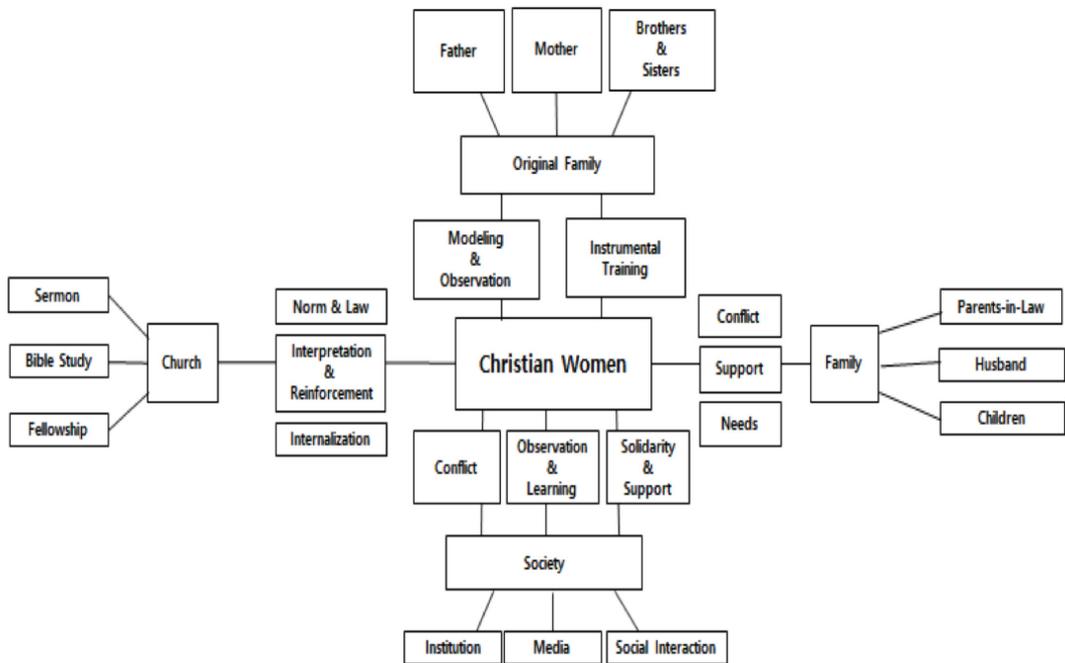


Figure 1. Factors affecting Christian Women's Understanding of Calling

## IV. 대안적 담론으로서의 이중 소명

### 1. 자아 이론과 이중 소명

본 절에서는 오스기니스(2013)가 제시한 소명의 두 가지 차원 (예배와 세상 섬김)에 자아 이론 (Sirgy, 1982)을 적용하여 세상 섬김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라는 모습으로 이웃 사랑은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Guinness, 2013). 오스기니스의 소명 인식은 그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이 아닌, 예수께서 제시하신 두 명령-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도 상통하므로, 소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에 적합하다.

인간의 자아는 공적(사회적) 자아와 사적(개인적) 자아로 나뉜다(Sirgy, 1982). 즉, 자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아(social/public self)와 내가 인식하는 나, 개인적 자아를 뜻하는 사적 자아(private self)로 구성된다(Reed, 2002). 인간의 자아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사회적 자아를 발현할 통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상실감 혹은 미실현된 자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는 다시 현재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로 구분된다(Hawkins and Mothersbaugh, 2016). 현재적 자아는 자신이 실제로 인식하는 나이이며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추구하는 되고 싶은 나이다(Hawkins and Mothersbaugh, 2016).

이를 전통적인 소명 인식에 적용하자면, 기독 여성의 이상적 자아는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 고취되고 있다. 가부장제의 현모양처와 같은 이미지로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하고 기도로 키우며 남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성이 완수해야 할 소명의 이상향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들에게는 공적 영역으로의 참여, 직업을 통한 헌신, 자신의 성장과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등이 소명의 이상향으로 제시된다.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소명인의 모습에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자아가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아 이론에 착안하여 세상을 섬기는 소명의 영역을 두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자아 이론을 소명 인식에 적용한 이중 소명 개념을 통해 성 역할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소명 인식을 짚고 남녀 공히 공적 영역과 사적 양 영역 모두에 부름이 존재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Figure 2는 오스기니스(2013)가 제안한 하나님을 예배함(일차적 소명)과 세상을 섬김(이차적 소명)이라는 소명의 다차원성을 기초로, 이차적 소명의 영역을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화한 것이다. 공적 영역은 직업 세계, 일터와 같이 시장 노동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전통적으로 남성 기독인들의 소명 의식이 발현되는 공간이었다. 사적 영역은 주로 가정과 같이 비시장 노동이 발생하는 곳으로 돌봄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이다.

이차적 소명의 영역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세분화시키면, 여성과 남성의 주 소명 영역이 성

역할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기혼 기독교 여성은 사적 영역(가정), 돌봄 영역을 우선적인 소명의 영역으로 인지하거나 내재화하고, 남성은 공적 영역(일터), 시장 노동을 우선적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로 이 영역에 재능과 시간, 노력을 쏟는다. 이중 소명 담론은 통계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현실을 소명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사적 영역에서의 성별 기여도를 살펴보자면, 맞벌이 가구의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40분, 여성 194분으로 여성이 82.9%, 남성이 17%를 기여, 65.9%의 격차를 보인다 (통계청, 2017). 공적 영역에서의 성별 참여도를 나타내는 세계 젠더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9개국 중 115위로, 경제 참여와 기회, 정치 권한 부문 모두 최하위권이다(World Economy Forum, 2018).

이중 소명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부르심(주로 사회인으로서의 직업)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부르심(주로 가정 내에서의 역할) 모두를 소명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부모·자식과 같이 관계로 인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사적 영역에서 발현되는 소명과, 공적 영역 안에서 발현되는 소명이 한 사람 안에 병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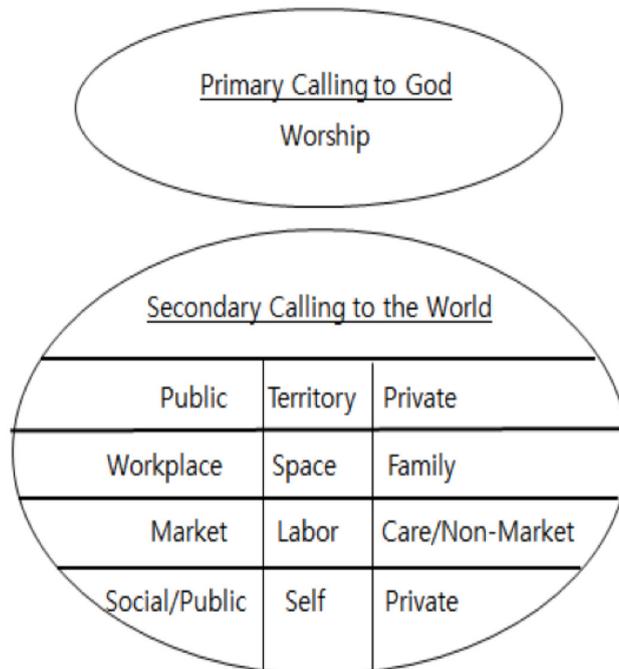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ization of the Dual Calling

## 2. 이중 소명과 여성

전통적인 소명 개념은 한국 기독교 여성들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딸과 같이 가족 관계 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현할 것을 명한다(백소영, 2013; 최순양, 2015). 이러한 소명 인식은 여성이 사회에서의 공헌, 직업 세계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추구해 가려고 해도 출산과 결혼 이후에는 직업적 소명을 차순위로 인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결혼한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가정을 돌보는 소명과 직업적 소명을 병행하는 것은 돌봄 자원 부족과 공감대 부족, 구조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 이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장소이고 사회는 가정과 비교해 부차적인 소명의 장소라는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서의 역할은 ‘밥벌이’ 혹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지하기 쉽다. 이러한 인식은 소명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

이중 소명은 기독교 여성이 직업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 추구나 부의 획득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기독교 여성을 하나님이 공적 영역으로 부르시고 이를 수행할 재능과 훈련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사적 영역에 갇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고 소명을 내버려 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강남순, 2017). 이 소명에 대한 방기는 사회적 소명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뿐만이 아닌, 구조적인 한계나 대안 돌봄 제공자의 부재와 같은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 직업을 통해 세상을 섬긴다는 루터의 소명 인식을 적용하자면(Luther, 2010), 하나님이 기혼 여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자 하셨던 의도가 발현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이중 소명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양 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중 소명은 성과나 결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도 양 영역 모두에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공적, 사적 영역 중 어느 한 쪽이 더 중요하거나 열등한 부르심의 영역이 아님을 명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이러한 이중 소명적 삶의 양식이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요약하면, 이중 소명 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일과 가정을 대하는 동기와 태도를 소명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의 소명과 사적 영역에서의 소명을 대등히 중요하게 다룬다. 셋째, 공적, 사회적 소명을 추구하는 기독교 여성의 내면적 필요에 대해 인정한다. 넷째, 남성 역시 사적 영역에서도 소명이 있음을 설명한다.

## 3. 이중 소명과 남성

기독교 남성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직업 선택을 소명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적다. 남성들은 결혼이나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공적 관계들을 만들어 낼 것임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중 소명 개념은 남편이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위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 노부모, 병약자들에 대한 돌봄은 아내가 맡아주는 것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전환한다. 여성들이 공적 영역을 소명의 영역으로 포용하는 만큼 남성들도 사적 영역을 소명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실용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다. 제자도는 전인적인 부르심을 의미한다. 이중 소명 개념을 통해 우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둘 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소명의 터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중 소명 담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소명 (i.e. 가사/돌봄 노동)과 공적 영역에서의 소명 (i.e. 시장 노동) 둘 다에 참여함으로써, 섬김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인격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중 소명이 여성에게는 사회적 소명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남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소명-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직장 내에서의 역할을 주 소명으로 여겨왔던 남성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주 소명으로 여겨왔던 여성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포괄한 전인격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남성에게 있어 이중 소명은 남편과 아버지로 부름 받아 돌봄과 섬김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명은 책임과 무게일 뿐만 아니라, 권리와 영광이다. 이중 소명 인식을 통해 기독교 남성들 역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 4. 이중 소명과 노동

이봉석(2016)은 금욕주의적 청교도 정신과 이의 구현인 자본주의 정신이 사람을 배제한 채 성취와 성공, 돈과 자산의 획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폴브레(2007)는 관계의 중시와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Folbre, 2007). 실제로 우리는 돌봄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 세상을 섬기는 창조 시에 의도하신 하나님 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폴브레(2007)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을 여성들이 담당해주었기에 시장의 작동이 가능했다는 논지를 펼친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성들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장 노동으로 계속해서 이탈할 것이고 결국 비시장인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잘 유지되지 않으리라 예측했다(Folbre, 2007). 폴브레의 이런 예측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사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비혼과 비출산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김난주, 2016). 특히,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시장 노동 (공적 영역)에서 이탈하게 될 것을 꺼린다(김언희·김병석, 2017).

어쩔 수 없이 부모 중 한쪽을 돌봄 노동 전담자로 선택하게 될 때, 이중 소명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비교 우위적 관점과 기회비용의 관점이 쉽게 적용된다. 비교우위의 관점이란, 남편과 아내 중 돌봄에

더 익숙한 사람이 아이를 전담해 돌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은, 연봉이 적거나 직업적 전망이 덜 뚜렷한 사람이 돌봄 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나 비교 우위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통상 여성의 임금이 더 적고, 문화 관습적으로 여성이 돌봄 노동을 전담해 왔기에, 엄마가 돌봄 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중 소명의 관점은 이런 단순 경제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 소명의 시각으로 돌봄 노동과 시장 노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중 소명 담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노동 모두를 소명의 차원으로 끌어 올린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며 시장 노동을 경시하거나, ‘벌어 봐야 애 봐줄 보모 값도 안 나와’하며 쉽게 직업소명을 포기하는 일을 막는다. 또한, 이중 소명 담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 모두를 소명으로 보기에 공적 소명을 쫓는데 함몰되어 엄마, 아빠로서의 소명과 돌봄 노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한다.

## V. 결론: 이중 소명, 자유로의 부르심

마틴 루터는 성직만을 소명으로 인식하던 중세에 소명의 관점을 세속적인 직업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본 논문은 이 세속적 직업의 영역을 사적·개인적 영역(돌봄 노동)과 공적·사회적 영역(시장 노동)으로 세분화하여 소명에 대한 논의를 심화했다. 이를 통해, 출산과 결혼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여성은 사적 영역, 남성은 공적 영역으로 소명의 영역을 성별 분리화하는 현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소명 개념에서는 기독 여성의 공적(사회적) 자아가 발현될 필요가 잘 드러나지 않아 이를 인정하거나 장려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빠져있었다. 기독 남성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소명을 개발하고 발현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강조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중 자아를 기초로 개념화한 이중 소명 담론을 통해 성별화된 통념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인의 재능과 의사와 무관하게 한쪽만 선택하게 되는 기독인들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기독 여성의 최우선적 소명은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육받으면, 기독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소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탐색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한 개인의 또 다른 소명의 영역은 사장되고 기독인들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본 논문은 전통적 가정의 형태 즉, 기혼 유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소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가정과 일터 둘 다의 영역에서 남녀 공히 소명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핵심 논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가장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극명히 대조되는 집단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전인적 소명의 삶으로 초대하셨고 성별에 따라 확실히 부르시지 않았다는 논지는 한부모 가정, 기혼 무자녀 가정, 미혼 남녀에게도 적용된다.

이중 소명 개념을 여성은 일과 가정을 모두 완벽히 일구는 슈퍼맘이 되어야 한다와 같은 이중 부담

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 여성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에 더해 공적 영역에도 기여하고, 두 영역 모두 잘 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장과 다르다. 그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 운영과 자녀 돌봄을 전담할 사람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비교우위와 기회비용에 대한 대응적 인식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중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로 부르셨음을 상기하며 경제적 논리로 소명의 영역을 성별 분리화하려는 시도를 재고할 수 있다.

한편, 남편과 자녀, 가정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적 소명이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여성들에게 직장으로 나가라고 내모는 듯 이중 소명 개념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일단의 기독 여성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을 온전하게 존중받지 못해 상처받는 것과 동일하게, 폭력적인 적용이다. 성별에 따라 소명을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듯 개인 역시 각자의 가족 수명 주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소명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제약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이 주요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자아 실현을 꿈꾸고 본인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 유자녀 여성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임금 기혼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돌봄 노동과 시장 노동을 이제껏 병행해왔다. 비혼과 비출산이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비혼 남녀의 경우에는 이중 소명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사적 영역에서의 소명, 돌봄 노동은 자녀 양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노년, 장애인, 환자, 사회적 사각지대에 속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 비혼, 무자녀 가정과 같은 다양한 부류의 기독인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도 이중 소명 개념이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본 논문에서는 초점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유자녀 기혼 여성을 선정하여 이중 소명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에 따라, 또한 본 논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기독 남성들에게는 이중 소명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담론을 양적 연구로 검증해 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기독인과 비기독인들이 가정과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소명 의식과 직업인으로서 갖는 소명 인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다면, 기독교적 문화와 교육이 기독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가부장적 설교가 실존하는지, 이러한 설교가 교회 내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리화된 소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의 설교 내용을 감성 분석기법(sentimenta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고 소속 교인들의 소명 인식을 측정해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중 소명적 삶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여성과 남성 개인이 전통적인 소명 담론을 벗어나 자신의 삶과 소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전통적인 소명 담론이 여성과 남성의 소명의 영역을 성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이 “일중독과 독박돌봄”으로 나뉘어진 사회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2020: 33).

산업화가 성별 분업화에 기반해서 성장해왔다면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일에 대한 인식과 일터 문화는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의 사안도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독인들은 창조주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중 소명은 남성은 공적 영역, 여성은 사적 영역이 최우선적 소명이 발현되는 공간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바로 잡도록 돕는 인식틀이다. 출산과 결혼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소명의 영역이 성별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지적한다. 이중 소명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훈련과 기회를 통해 개발되고 개별적으로 부여된 부르심을 따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소명을 추구하고 발현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즉, 이중 소명은 더 넓고 깊은 자유로의 부르심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남순 (1995). 한국의 교회는 평등공동체인가?. **한국여성신학**, (24), 63-73.  
[Kang, N. S. (1995). Is Korean Church an Equal Community?. *Korean women's theology*, (24), 63-73.]
- 강남순 (2017). **페미니즘과 기독교**. 동녘출판사.  
[Kang, N. S. (2017). *Feminism & Christianity*. Dong-nyok Press]
- 권순원·이영지(2010).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재진입. **기업경제연구**, 39(1), 45-57.  
[Kwon, S. W. & Lee, Y. J. (2010). Determinants of women's career break and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Business Economy Research*, 39(1), 45-57.]
- 김난주 (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1-27.  
[Kim, N. J. (2016). Analysis on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to Labor Market and Maintaining the Reemploy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6(2), 1-27. ]
- 김선권 (2018). 칼뱅의 소명론: 활동하는 하나님, 활동하는 인간. **한국조직신학논총**, (52), 85-132.  
[Kim, S. K. (2018). Calvin's Doctrine of Vocation: Active God, Active Human.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2), 85-132.]
- 김선영 (2014). 특집: 젠더-결혼-가족 : 루터의 여성관 -영-육 이원론적 논법 대(對) 믿음과 사랑의 논법. **한국교회사학회지**, 38(0), 49-87.  
[Kim, S. Y. (2014). Luther on Women - The Dualism of Flesh and Spirit vs. the Logic of Faith and Lov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38(0), 49-87.]
- 김언희, 김병석(2017).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지향성에 따른 직업가치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학력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173-193.  
[Kim, U. H. & Kim, B. S. (2017). The Differences of Vocational Value Aware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ypes of Role Orientation of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f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 173-193.]
- 김유리, 서문교, 권인수 (2016). 소명 의식의 선행요인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4(4), 75-98.  
[Kim, Y. R., Seo, M. K. & Kwon, I. S. (2016) The Antecedents of Sense of Calling. *Logos Management Review*, 14(4), 75-98.]
- 문시형 (1999). **직업 소명과 책임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 [Moon, S. H. (1999). *Vocational calling and responsibility ethics*. Seoul : Handl.]
- 박문재 역. (2018).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Max Weber. (1920). *The Protestna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alism*. 현대 지성 출판사.
- [Park, M. J. (2018). *The Protestna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alism*. hyeondae jiseong. Trans. Max Weber. (1920) *The Protestna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alism*.]
- 백소영 (2013).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사이**. 대한기독교서회.
- [Baek, S. Y. (2013). *To be mother, Between healing and killing*.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백소영 (2018).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 [Baek, S. Y. (2018). *The contexts of christianity and feminism*. News and Joy.]
- 백소영 (2019). **적당맘 재능맘-4차 산업 혁명 시대, 4세대 엄마 되기**. 대한기독교서회
- [Baek, S. Y. (2019). *To be 4G mom in the 4<sup>th</sup> era of Industrial Revolutio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백경훈. (2015). 유자녀 여성 고용 성평등을 위한 대안적 담론 모색: 일·가족양립에서 성평등·아동안녕으로의 변화. **한국여성학**, 31(4), 181-216.
- [Baek, K. H. (2015). A Study on Alternative Discourse for Employment Gender Equality of Working Mothers: a Shift from Work-Family Balance to Gender Equality and Child Well-Being. *Korean Women's Studies*, 31(4), 181-216.]
- 송수진 (2019). 기독교 여성의 가정과 일, 고통과 치유를 향한 고찰: 백소영의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적당맘 재능맘]. **기독교사상**, 729, 207-213.
- [Song, S. J. (2019). The Christian Women's the housework and social work, *Consideration for pain and healing*. *The Christianity idea*, 729, 207-213.]
- 송인규, 양혜원, 백소영, 정재영, 김애희, 정지영. (2018).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IVP
- [Song, I. K. et. al. (2018). *Christians in the era of Feminisim*. IVP]
- 안기순 역. (2013). **린 인**, Sheryl Sandberg (2013) *Lean In :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 와이즈베리.
- [Ahn, k. s. (2013). *Lean In*. Wiseberry. Trans. Sheryl Sandberg. (2013). *Lean In :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 Ebury Press.]
- 양혜원 (2012). **교회 언니, 여성을 말하다**. 포이에마 출판사.
- [Yang, H. W. (2012). *Christian woman, Refer to women*. Poiema.]

- 우병훈. (2017).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의 의미와 현대적 의의. **신학논단**, 87, 209-235.  
[Woo, B. H. (2017). Luther's Doctrine of Universal Priesthood and Its Implications for Today. *Theological Forum*, 87, 209-235.]
- 우병훈. (2018).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 57(0), 72-132.  
[Woo, B. H. (2018). The Vocational Ethics of Martin Luther and Its Implication for Modern Society. *Korea reformed theology*, 57(0), 72-132.]
- 유희정 역. (1997). **가부장제 이론**, Sylvia Walby.(1990). *Theorizing Patriarch*.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Yoo, H. J. (1997). *Theorizing Patriarch*. Trans. Sylvia Walby.(1990). *Theorizing Patriarch*. Oxford: Basil Blackwell.]
- 윤자영 역. (2007). **보이지 않는 가슴-돌봄 경제학**, Nancy Folbre.(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또 하나의 문화 출판사.
- [Yoon, J. Y. (2007).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Alternative Culture. Trans. Nancy Folbre.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Press.]
- 이봉석 (2016). 신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시대 노동신학의 필요성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4, 69-102.  
[Lee, B. S. (2016).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ology of Work' in The Neoliberalism and The Technology. *The Korean Journal of Chiristian Social Ethics*, 34, 69-102.]
- 이승현·박영일(2017). 고학력 30대 한국여성들의 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4(3), 45-68.  
[Lee, S. H. & Park, Y. I. (2017). A Study on highly educated women's Retirement and Career Interruption in their 30s.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4(3), 45-68.]
- 이신열 역. (2016). **결혼의 개혁: 오늘을 위한 메시지**, Herman J. Selderhuis(2016). *The Reformation of Marriage : a Message for Today*. 갱신과 부흥, 18(1): 1-22.  
[Lee, S. Y. (2016). *The Reformation of Marriage : a Message for Today*. Reform & Revival, 18(1): 1-22. Trans. Herman J. Selderhuis. (2016). *The Reformation of Marriage : a Message for Today*.]
- 이정숙, 이덕주, 송인규 (2013). **한국교회와 여성**. IVP.  
[Lee, J. S., Lee, D. J. and Song, I. G. (2013). *Korean church and women*. IVP.]
- 이종은 (2018).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 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23(1), 121-157.

[Lee, J. E.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Faith & Scholarship*, 23(1), 121-157.]

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Jo, N. J. (2016). *Kim Ji young, born in 1982*. Minumsa.]

최순양 (2015). 한국개신교의 '가족강화' 신앙교육과 여성. **종교문화연구**, (25), 45-67.

[Choi, S. Y. (2015). Gender Role Centered Faith Development for Women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5), 45-67]

추인해 역. (2010). **그리스도인의 자유/루터 생명의 말**, Luther Martin. (1520).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Day by day we magnify thee) 서울: 동서문화사.

[Chu, I. H. (2010). The freedom of christian / Luther's word of life. seoul : Dongseo culture. Trans. Luther Martin. (1520)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Day by day we magnify thee)*.]

통계청 (2017).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Statistics Korea (2017). *Employment Survey of Double-income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Second Half of 2016* ]

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Statistics Korea (2019). *Survey of Women's lives* ]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Statistics Korea(2020).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외 (2020).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원

[KDI, Kang D. S. et. al. (2020). Fertility Policy Reconsidered: Rebalancing the Family Lif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2017).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홍병룡 역. (2013). **소명**, Os Guinness(1998).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IVP.

[Hong, B. R. (2013). The call. IVP. Trans. Os Guinness. (1998).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Thomas Nelson.]

Dik, Bryan J., and Ryan D. Duffy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Dubin, R.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s: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3), 131-142.

Epp, A. M., & Velagaleti, S. R. (2014). Outsourcing parenthood? How families manage care assemblages using paid commercial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4), 911-935.

Fraser, N. (2013). *Fortunes of feminism: From state-managed capitalism to neoliberal crisis*. Verso Books.

Grant, A. M. (2007). Relational Job Design and the Motivation to Make a Prosocial Dif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2), 393-417.

Grant, A. M. (2008). Does intrinsic motivation fuel the prosocial fire? Motivational synergy in predicting persistenc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1), 48.

Hawkins, D. I., & Mothersbaugh, D. L. (2016). *Consumer behavior: Building marketing strategy*, 13<sup>th</sup> edition. McGraw-Hill.

Kahn, W.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Kim, C., Lee, H., & Tomiuk, M. A. (2009). Adolescents' perception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some aspects of their consumer socialization. *Psychology & Marketing*, 26(10), 888-907.

Loscocco, K. A. (1989). *The interplay of personal and job characteristics in determining work commi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18(4), 370-394.

Palan, K. M., & Wilkes, R. E. (1997). Adolescent-parent interaction in family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2), 159-169.

Rosso, B. D., Dekas, K., & Wrzesniewski, A. (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Schaninger, C. M., & Danko, W. D. (1993). A conceptual and empirical comparison of alternative household life cycle mode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4), 580-594.

Sirgy, M. (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December), 287-300.

Wiesner, M. E. (1992). *Studies of Women, the Family and Gender, in Reformation Europe*:

*A Guide to Research II*, ed. William S. Maltby (St. Louis: Center for Reformation Research, 159-187.

Wilkes, R. E. (1995). Household life-cycle stages, transitions, and product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1), 27-42.

World Economy Forum (2018). *Global Gender Gap Report*

# 이중 소명, 성분리적 소명 인식의 대안 고찰 - 일가정 균형 관점에서

## Dual Calling, an Alternative to Gender Separated Calling - Focused on Rebalancing Work and Family

송수진 (고려대학교)

### 논문초록

소명은 일에 대한 의미, 사회적 참여, 초월적 부르심의 3요소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설교와 성경 공부,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주로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이 여성의 우선적 소명이라고 강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소명 인식은 가부장제의 문화적 전제 안에서 해석되어 현대 여성들의 삶에 적합하지 않고, 여성의 공적 자아에 대한 고려가 적은 설명임을 밝힌다. 성별로 분리화된 소명 인식에 대한 대안으로 자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 소명을 제시하고, 남성과 여성 공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 소명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루터, 칼뱅, 베버, 오스기니스와 같은 기독교 내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소명 인식과 한계를 살피고,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소명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주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아 이론을 기초로 도출한 이중 소명의 개념과 함의점, 후속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이중 소명, 듀얼 콜링, 일과 가정, 일과 여성, 소명